

영남본부, 국토해양부 BP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녹색성장의 열쇠, 임목폐기물 재활용' 발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11일 정부 과천청사 지하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열린 '12년 공공기관 B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산하 공공기관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영남본부는 '녹색성장의 열쇠, 임목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제목으로 김순일 사업총괄부장과 신용호 대리가 발표했다. 내용은 공단 내 임목폐기물과 폐목재를 현장에 재활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철도를 건설하는 기관으로서의 공단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항~삼척 제1공구 현장에 이를 적용하여 약 1억 1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또한 '13년 신규발주 사업에 재활용 방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약 12억의 사업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의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전파하여 창의적 문화를 활성화하는 자리이다. 영남본부의 이번 수상은 공단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타기관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본부 신용호 기자〉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조기 개통

- 철원군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에 기여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경원선 신탄리~철원(백마고지)간 5.6km 구간의 철도복원사업을 당초보다 약 1개월 앞당겨 내달 20일 개통할 예정이다.

경원선은 1914년 8월 개통된 이래 용산~원산간 223.7km를 운행하며 한반도 중앙부의 물자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파괴돼 현재 비무장지대(DMZ) 주변 31km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 구간을 '06년에 착공해 4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단선으로 복원함으로써 장래 남북철도 연결의 초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본부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인 본 사업이 완공되면 철원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이 쉬워져 지역경제 발전 및 철원평야 철새도래지 등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도 위 교량 성공적 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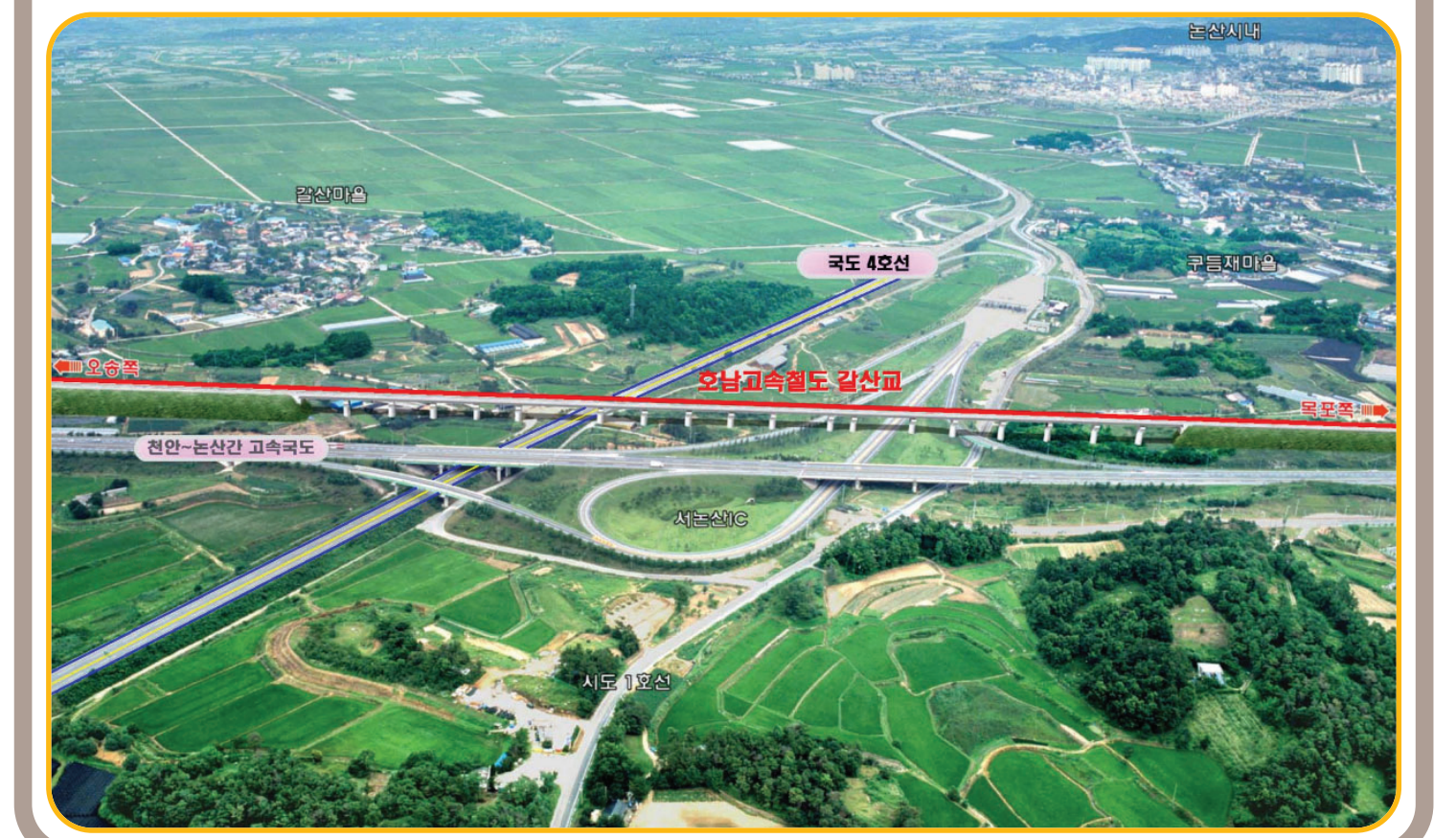
- 충청본부, 호남고속철도 2-2공구 갈산교 설치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9월 27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서 4번 국도를 횡단하는 호남고속철도 교량 갈산교를 안전하게 거치하였다.

갈산교는 총길이 685m(콘크리트교 535m, 강합성교 150m)이며 그 중 국도 4호선 상부를 통과하는 최장 50m 1경간 거치를 위해 국내에 6대뿐인 550t 하이드로크레인(H/C)과 450톤 크레인을 사용했다.

본부는 기존 국도를 통행하는 1일 통행량 1만3400대의 차량 및 도로시설물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거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논산경찰서, 시공업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호남고속철도 2-2공구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호남고속철도의 2015년 개통을 위해 공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건널목 3개소 입체화 추진, 철도안전운행 확보

- 내년 관동·개태사·학천2건널목 입체화사업 착수 -



호남선 관동건널목



충북선 학천2건널목



호남선 개태사건널목

시설사업본부(본부장 강근식)는 건널목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호남선 2개소(충남 논산 관동건널목, 개태사 건널목), 충북선 1개소(충북 청원 학천2건널목) 건널목을 국비 33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건널목 입체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호남선 동원건널목 등 9개소에 대해 공단이 75%의 사업비를 부담(지자체 25%부담)하여 입체화사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이번 호남선과 충북선의 건널목 3개소에 대해 추가로 입체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전국에 산재하는 철도건널목의 개량을 위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입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궤도실시설계 직접시행 추진

- 궤도분야 기술력 향상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주행하는 열차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고, 하부노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궤도시설물에 대해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한 직접설계 시범사업 수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은 모든 궤도시설물의 설계를 외주영역에 의존하였으나, 이번 자체 인력을 활용한 직접설계를 시행하여 궤도설계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외주설계 용역사의 기술력에 의해 설계품질이 좌우되는 맹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수인선 속도~인천간 궤도설계'를 직접설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본사 궤도설계 담당자와 지역본부 궤도공사 담당자로 구성되는 T/F팀에게 오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 직접설계로는 사업비 약 2억 2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본부 관계자는 "공단 내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 설계심사 등을 통해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향후 구조해석, 상세시공도면 작성 등 설계역량을 확보해 직접설계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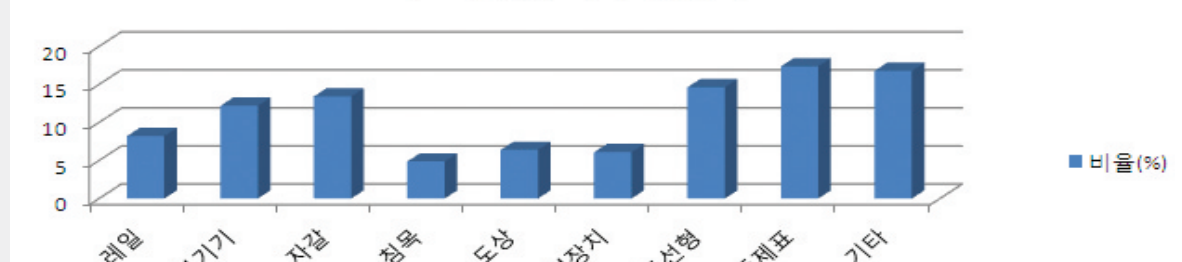


기술본부, 개통사업 궤도시설물 점검

- 점검결과/대책방안 순회교육 시행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11~12년 개통사업(수인선 오이도~송도간 복선전철사업 등 11개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궤도시설물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관리방안에 대한 품질경향분석도 시행했다.

< 궤도시설물 지적사항 분포 >



또한 유사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궤도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교육을 시행중에 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발생한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분석·보완하여, 동종의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본부 정광호 기자〉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 민원해결 지원

- 현장 법률상담 활성화로 전년대비 소송건수 10% 감소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민원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공단 법률고문이 직접 현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하고, 전화로도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06년 3월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총 79회 555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본부에 따르면, 법률상담은 민원인과 접점이 많은 국유재산관리·용지관련 업무가 25.6%로 제일 높았고, 그 외 채권·세금·회계 등이 12.6%, 건설시공·계약·설계 등이 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공사와 관련한 손실보상, 입찰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도와줌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 결과, 전년 대비 소송건수가 1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본부는 각종 건설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와의 협력 문제까지 법률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문제해결지원반을 활용하는 등 법률상담의 영역을 확대 시행해 공생발전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